한탄강 사업 추진단 구성 체계적 개발·관리 새출발

총괄·체육시설·기타 3개반 구성
김영길 미래성장사업단장 겸임

포천시가 한탄강댐 홍수터 개발에 컨트럴타워가 없어 체계적인 개발이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본보 11월14일자 15면**)과 관련, 시는 관련 부서 회의를 열어 미래성장사업단을 주축으로 하는 한탄강 개발사업 추진단을 구성하고 김영길 미래성장사업단장을 겸임토록 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갖춘 한탄강 국가지질공원과 한탄강댐 건설로 조성된 홍수터 부지 개발에 컨트럴타워가 없어 같은 장소를 두고 부서별로 서로 다른 개발이 이뤄져 체계적인 개발은커녕,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원석 시의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컨트럴타워가 없어 발생한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김종천 시장은 한탄강을 종합관리할 컨트롤타워를 구성,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아가는 한탄강 개발사업 추진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했고 김영길 미래성장사업단장을 겸임토록 했다.

한탄강 개발사업 추진단은 총괄반, 체육시설반, 기타 잡목반 등 3개 반 등 모두 9명으로 구성하고 모든 한탄강 홍수터 개발사업 추진 시 추진단의 사전협의 이행과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총괄 관리, 체계적인 개발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게 된다.

김영길 단장은 "이번 추진단 구성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더욱 체계적인 한탄강댐 홍수터개발이 이뤄지고 관광사업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나눔을 실천하는 119소년단
소화기 UP & DOWN 119캠페인
우리집 소화기 1개 경보기 1개는 생명을 9합니다
겨울철 불조심 하세요

성남소방서 119소년단, 불조심 캠페인 성남소방서 소속 한국119소년단이 10일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성남동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불조심 캠페인을 펼친 가운데 어린이들이 "겨울철 불조심 하세요"라고 적힌 폿말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성남=강현숙기자

'쪼개기 의혹' 남양주 대형유통업체 갈등 심화

〈세계로 식자재마트〉

건축주 현직 시의원으로 확인
유통업계 "도의적 책임" 지적
시의원 "마트입점 필요" 반박

국내 대형 유통업체인 세계로 식자재마트 남양주지점의 '불법 쪼개기 건축' 의혹과 관련, 인근 지역 유통업계가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 반발하는 가운데(**본보 5일자 7면**) 건축주가 현직 시의원으로 확인되면서 관련 업계가 공인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거론하고 나섰다. 그러나 해당 시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구매 기회를 박탈하지 말라"며 즉각 반박에 나서면서 양측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남양주시와 지역 유통업계, A 시의원 등에 따르면 '불법 쪼개기 건축' 의혹이 제기된 세계로 식자재마트 남양주지점 오남읍 양지리 3개 필지와 각각 2천540㎡, 1천955㎡ 규모 건축물의 건축주가 A 남양주 시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시의원은 지난 2004년 구매한 자신의 토지에 올해 4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2개 동 건축물에 대한 판매업 행위에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마트 관계자 측에 대해 10년간 임대 계약을 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역 유통업계는 '현직 시의원이 자신의 실익만을 바라보며 지역상권을 붕괴시키고 있다'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진접·오남 지역 유통업계 대표 B씨는 "A 시의원이 대형마트인 줄 알면서도 직접 건축허가를 받고 임대를 주는 행위 자체에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다"며 "특히 산건위 소속의 시의원인 공인 입장에서 지역상권 붕괴가 우려되는 대형마트를 앞장서서 건축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 자신의 이익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A 시의원은 '코끼리(대형) 업체'가 포함된 진정인들의 주체가 의심스럽다며 마트 입점은 오히려 필요한 상황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A 시의원은 "반발을 주도하는 주체가 대형마트 관계자로 구성됐는데, 이들이 나서서 지역상권을 죽인다고 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아무 것도 모르는 선량한 영세 상인을 현혹해 내세우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에게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도록 조성하는 게 뭐가 잘못된 행위냐. 마트는 이미 임대인과 계약서를 통해 불법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인을 받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A 시의원에 대해 피고소인 신분으로 1차 조사를 마쳤다. A 시의원은 지난 9월 남양주시 오남읍 마트조성 과정에서 농작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를 준 사람과의 분쟁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아직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안산시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탄력'

국내 기업 3곳과 투자의향서 체결

안산시의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과 관련, 스웨덴 마리나항만 개발기업과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한 데 이어 국내 기업 3곳이 모두 2천억 원 규모의 투자 의사를 밝힘에 따라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지난 8일 시청에서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 제종길 시장과 국내 기업 3곳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투자의향서를 체결했다. 이 사업은 최근 요트 등 레저용 선박계류장을 중심으로 인근에 식당과 숙박시설 등 다양한 관광 및 레저시설 등을 갖춘 항구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국내 3사의 투자금액은 2천억 원이다. 투자 의사를 밝힌 기업과 투자금액은 ㈜엘도라도리조트 1천억 원, ㈜마린코리아 600억 원,㈜한국R&D 400억 원 등이다.

시는 앞서 지난 9월 2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국내·외 기업 및 마리나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10월 19일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해 해외 마리나 전문기업인 SF 마리나와 2천억 원의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국내 투자자와 의향서 체결로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은 국내외 모두 4곳으로 투자금액 규모는 4천억 원에 이른다.

제종길 시장은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이 국내 최고의 투자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이천 중리지구 일부 토지주, 대토 공급위치 놓고 반발

지정취소·설명회 개최 등 요구

이천 중리택지개발지구 수용에 따른 대토 보상 공급 예정토지 위치계획에 대해 일부 대상 토지주들이 반발하면서 대토 계약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0일 이천 중리 택지개발지구 대토추진위원회(추진위)와 LH 경기지역본부 이천보상사업소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중리 택지개발사업지구 개발 대토 보상계획공고 계획에 의해 보상 개시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기간을 두고 오는 31일까지 신청서 내용과 같게 용지보상 계약체결을 안내했다.

그러나 추진위는 "사유재산권 보호가 가능한데다 무엇보다 종전의 생활터전에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어 대토를 계약하려 했으나 도로와 붙은 상업지역은 LH, 단지 내 사업시설은 토지주에게 제공한다는 건 대토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현재도 자금난으로 힘든 데 대토지의 계약 후 미분양으로 남는다면 청산절차 등에도 문제가 돼 지속해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대토필지 지정 취소와 함께 추진위와 협의, 대토 설명회를 열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LH 보상사업소 관계자는 "대로변의 필지는 생활 대책 용지 대상자에게 우선 보상하기 위한 토지(수용재결을 하지 않고 협의한 토지주)로 현재로선 이미 계약자와 대토 포기 토지주들이 있어 토지 위치 변경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위더뷰 수원 분양공고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수원시 제2017-건축과-분양신고-21호 (2017.12. 8) 로 분양신고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 (2016-건축과-신축허가-71)
■ 분양사업자에 관한 사항
·건축주 : 대한토지신탁(주) ·시공자 : 유호산업개발(주), ㈜태건씨앤씨 ·위탁자 : ㈜더가온누리
■ 분양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16-12외 6필지(16,16-1,16-14,16-17,16-19,16-21)
■ 대지면적 : 1,857.3㎡ ■ 연 면 적 : 20,613.40㎡
■ 공급규모 : 지하4층~지상14층, 생활숙박시설 423실 및 근린생활시설 32호
■ 건축물의 층별 용도 : 지하4층~지상14층 생활숙박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구분	B4~B1(일부)	B1(일부)~3F(일부), 14F(일부)	3F(일부)~13F
용도	주차장, 기계전기실 등	근린생활시설	생활숙박시설

■ 분양개요

구분	총호실	타입별 A	타입별 B	타입별 C	기분양완료	금회분양
생활숙박시설	423	37.66㎡	40.49㎡	74.72㎡	375	48
		365	55	3		
근린생활시설	32	32개 타입(호실별 면적상이)			30	2

• 경비실(주차관제시스템) 위치는 교통 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본 건축물을 시공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마감자재는 분양홍보관을 기준으로 시공되나, 분양홍보관에 사용된 제품은 자재의 품귀, 품절,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특허등의 사유로 단가상승)와 신제품의 개발 시에 한하여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마감자재의 내용은 타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제반 홍보물의 면적 및 세부내용은 인.허가 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일부 실에 기둥이 설치되어 사용에 불편사항이 발생될 수 있으니 기둥 설치위치 및 기둥면적에 대하여 반드시 분양홍보관에서 확인하시거나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람.
• 각종 분양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실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입실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기 바람.
• 기존분양신고(수원시 제2017-건축과-분양신고-2호(2017.02.22)) 및 분양공고(아시아경제, 2017.02.23)에 의거 체결한 기존 분양계약자의 분양계약조건 등과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3층, 4층, 5층은 숙박업 영업신고 후 영업운영예정이며, 3층, 4층, 5층 분양호실 외에는 숙박업 영업운영이 허용 불가함.
•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105호는 약국, 111호는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로 입점 예정이며, 타 호실에서는 동종업종 입점이 불가함.

■ 사업관계자

구 분	회 사 명
매도인 겸 수탁자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위탁자 겸 수익자	㈜더가온누리
시공사	유호산업개발 주식회사
분양대행사	해 솔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표시사항.
-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 : 등록번호-서울080011, 대한토지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삼성동, 아셈타워)
- 소유권에관한사항 : 대지소유권 100%확보
- 소유권이전형태 : 잔금완납시 개별등기
■ 분양홍보관 위치 :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15 (이의동) 아이플렉스 106호

■ 분양문의 031-257-0603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분양홍보관 방문 후 관계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